

중앙일보

종합

A-4 2004년 4월 13일(화요일)

“징용배상 위헌은 유감” 정의연대 성명서 발표

지난 달 30일 거주 항소법원이 내린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헤이든법)에 대한 위헌판결과 관련,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HJN)와 제 2차 세계대전 피해 한인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욱 강력한 국

제적 연대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정의연대(공동대표 정연화, 헨리 유)는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에서 “합헌이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이 판결을 번복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동안 역사적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연화 기자